

새해 새 설계

유 동 국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스마트가전·금형 지역 특화”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지역특화산업은 고용창출형 산업 활성화가 중심입니다.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창출이 높은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 (재)광주테크노파크의 유동국(50) 원장은 14일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는 이제까지 매출액과 특허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고용량을 얼마나 늘렸느냐로 가치 척도가 바뀌고 있다”며 “광·가전·자동차 등 광주의 3대 전략산업을 유지하되 고용량에 중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원장은 광주의 신지역특화 대상산업으로 ▲스마트가전 ▲금형 ▲생체형의료소재 부품 ▲ICT(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 ▲디자인 등 5가지 사업을 꼽았다. 특히 광주가 문화도시인 점을 감안, 문화콘텐츠와 디자인에도 사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테크노파크 2단지 부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유 원장은 “아직 부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광주시와 미납금에 대해 조율을 거치는 과정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부지 9만9174㎡(3만평) 중 6만6116㎡(2만평)는 테크노파크가 사용하고, 3만3058㎡(1만평)는 R&D특구본부에서 이노비즈센터를 지을 것”



지역특화산업 5개 선정 해외센터 내실 강화하고 월드클래스300 5곳으로

이라며 “예산이 확보된 3D상용화 지원센터와 이노비즈센터를 먼저 진행하고, 치과플러스터 등 기획 사업은 진행되는 대로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테크노파크 최초로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17개국 21개소에 마련한 해외비즈니스센터는 올해 내실 강화에 나선다. 유 원장은

“지난해까지 거점 확보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성과 위주로 센터를 평가할 것”이라며 “호주 등 일부 센터는 3~4건의 수출성과를 낸 반면, 아직 지원이 미비한 센터가 있는데 상위 20%는 지원하고, 하위 20%는 탈락시키겠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올해 운영방안으로 “광주테크노파크가 15주년을 맞은 만큼 지역산업5개년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마다의 산업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전체를 보는 큰 틀의 산업정책 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기업 지원도 이제까지 중소기업 중심이었다면 중견 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 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까지 지경부가 지정하는 ‘월드클래스300’(세계적 수준 중견기업)이 광주·전남에 단 1곳이었는데 시와 협조해 올해 5곳까지 늘려나갈 것”이라며 “중견 기업을 키우면 자연스레 하청기업이 탄생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정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평가와 기관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정부로부터 상사업비만 총 61억원 을 받아 다시 기업에 지원하는 등 지역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연동통신사 exian@kwangju.co.kr

유통업계 키즈 마케팅으로 ‘불황 돌파’

지역 백화점 등 문화강좌·매직쇼 행사 학부모 방학 부담 덜고 매출 확대 기대

‘키즈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역 유통업계의 동심잡기 마케팅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은 초·중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과 간식 먹거리전도 진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매장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여종 이상의 간식 먹거리를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갤러리에서는 이달 23일까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명랑한 만화, 유쾌한 미술’전을 23일까지 연다. 문화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유명 박물관 탐방’(17일)을 진행한다. 이번 탐방에서는 신문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을 둘러본다.

이밖에 연상교육법을 활용해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상력 두뇌활동 종이접기 영재교실’강좌(19, 26일)도 진행한다.

롯데아울렛 수안점 뽀로로테마파크에서는 매주 월~목요일까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뮤지컬 ‘뽀로로 수퍼쇼’ 대모험 심어롱쇼를 진행하며 매주 주말마다 뽀로로 3D애니메이션을 상영 중이다.

또 1층 이벤트 홀에서는 ‘스트리트 매직쇼’(19일)가 열리고 ‘미니 달력 만들기’(“), ‘뽀 캐리터 양초 만들기’(20일)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어린이들이 현책을 가지고 오면 무료로 뽀로로 테마파크도 이용할 수 있다. 모인 현책은 지역내 불우이웃을 위해 기증될 예정이다.

롯데아울렛 월드컴즈 1층 정문광장에서는 비누방울 버블쇼(27일)를 연다. /이민미기자 emlee@



전기로 절반 절전형 미니가전 한파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전기료 인상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지역 유통업체에서도 기존 제품 대비 전기료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절전형 미니 가전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1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가전매장에서 고객들이 3인용 전기밥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없이는 못살아”

방통위 필수 아이템 설문 50대 TV·20대 스마트폰

50대 이상은 여전히 TV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20대 이하의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23~7월25일 전국 3453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남녀 6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명중 5명(53.4%)은 TV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

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사람은 4명중 1명(25.0%)이나 됐다.

특히 10대(45.9%)와 20대(50.7%)는 스마트폰을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응답한 반면 50대(81.0%)와 60대 이상(92.9%)은 TV를 필수매체로 선택,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보급률 측면에서는 TV(97%)가 여전히 데스크톱(66.2%)과 함께 가정 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매체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의 보유율은 57.5%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미디어 이

용의 스마트화가 급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스마트폰 등 신규매체 이용으로 TV 이용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29.3%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미디어 대체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11.1%)와 60대이상(3.8%)보다 20대(50.5%)와 10대(42.6%)에서 신규매체 이용으로 인한 TV 이용시간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미디어 대체효과와 연령간 격차를 실감케 했다. /연합뉴스

올 금융사 실적전망 어둡다

대한상의 조사 응답기업 56%

금융회사의 과반이 올해 실적에 대해 작년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금융업 경영여건을 조사한 결과 55.6%가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작년 수준’ 또는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 31.7%와 12.7%로 집계됐다.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 확산’(37.7%), ‘가계부채 급증’(26.3%), ‘유리법 재정부기 지속’(20.2%), ‘국내 금융시장 경쟁 심화’(11.4%), ‘금융규제 강화’(4.4%) 등을 차례로 들었다. 업종별 실적 전망은 은행업(71.2%)이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고 이어 카드업(66.7%), 증권업(52.9%), 보험업(45.3%) 등의 순으로 실적이 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남녀 고용 평등 기업·유공자 접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오는 2월20일까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정기 지도·감독 면제 ▲조달청 물품 입찰 적격심사기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의 경우 여성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2~3월에 현지 실시 및 궁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정된다. 5월27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 때 시상할 예정이다.

신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및 궁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정된다. 5월27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 때 시상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eju travel packages. Title: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Features: 3-year consecutive "Best Airline" award, Asia Pacific Airlines, Jeju Air, and various tour packages with prices ranging from 155,000 to 644,000 KRW. Includes details about flights, hotels, and activities.